2019년 하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 후기

사학과 201221594

하재인

1. OJT 프로그램에 대하여

 OJT란 On Job Training의 약자로 주로 신입사원과 같은 미숙련자를 현장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직무교육법을 의미한다. 일본의 장인정신에 입각한 도제 숙련법이 회사의 직무교육에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OJT 하에서 신입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선임들을 보며 스스로 학습하고 체험하게 된다. 이번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한 하게 일본 단기 인턴십의 목적도 지원자들이 일본 현지 회사의 직무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OJT 기간 동안 회사의 직원들과 같은 양복 차림에 일상 직무를 하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연수를 진행하였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하는 연수였기에 일본어와 관련된 최소한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였고, 선발 과정에서도 JLPT N2 이상의 자격을 필요로 하였으며 간단한 일본어 면접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소정의 체제비와 비행기표, 보험을 지원하였고 숙소 및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자 본인이 준비하였다.

1. 일본 IT회사 다이코(大興)IWS

 일본의 IT회사인 다이코IWS는 일본의 중견 IT기업으로 다이코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다이코라는 이름 자체는 80년대에 이미 존재하였기에 그룹 전체로 보자면 신생 기업은 아니지만 IT 관련 업무를 다루는 IWS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설립되었다. 다이코IWS에서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ICT인프라, 시스템 개발, 시큐리티 대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교육 컨설팅이다. 즉,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 등을 설계하거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과 해당 직무가 필요한 인원에게 교육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명인 IWS도 Intelligent Work, Solutions의 약자로 회사가 맡은 직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IWS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Ikiik, Wakuwaku, Smile의 약자로 각각 생생함, 두근거리는 심장소리, 미소를 나타낸다. 전자는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후자는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OJT일정(2019. .7. 28~2019. 8. 2)

 일본에 체류한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의 5박 6일 간이었으며 실제 연수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의 4일 동안이었다. 연수기간 동안 세 명의 회사 직원 분들이 OJT와 관련된 활동 및 교육을 담당해 주셨다. 출국일에는 교수님이 인솔하셨지만 연수 도중에 먼저 귀국을 하시게 되었기에 8월 2일에는 연수생들끼리 돌아오게 되었다.

1. 1일차(7/28)

 7월 28일은 출국일로서 OJT와 관련된 특별한 일정은 없었다. 담당 교수님의 인솔에 따라 출국 후 일본에 도착해 회사의 근처에 있는 히로시마 역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연수를 함께 받는 다른 조원들과 미리 준비한 숙소로 이동하였고 저녁 시간에 교수님을 포함해 다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식사시간 동안은 교수님께서 OJT와 일본에서의 취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조언을 해 주셨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조언은 한국에서의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망치듯이 일본에 취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외국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떠나서 일본 취업 자체가 자신의 이상과 다를 수도 있으니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조언이었다.

1. 2일차((7/29)

 2일차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하였다. OJT의 첫날이었기에 회사에 가는 시간은 10시였다(3일차부터는 9시에 출근). 인솔자인 교수님이 회사의 사장 및 직원 분들에게 아주대학교 OJT 연수를 받으러 온 학생들이라고 소개해 주셨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였고, 회사에 대한 소개와 연수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점심시간에 회사의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렇기에 채용된 직원이 몇 년간은 일해주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하지만 해당 직원도 일본 회사의 경우에는 좋게 보지 않기에 본인을 위해서도 입사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은 노력해 주는 게 좋다는 조언이었다. 또한 다이코IWS의 경우에는 IT회사이기는 하지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IT관련 자격증을 비롯한 기술들보다는 일본어 및 대화 능력이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OJT 기간 동안 연수용으로 쓸 컴퓨터의 설치를 하였고 그 컴퓨터를 통해 명함 및 출입증 카드를 작성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있었기에 실제로 하는 일은 그 틀에 맞춰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넣고 학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사이트 주소를 적는 것이었다. 작업 도중에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회의실로 가 다이코 회사의 규정집을 소개받았다. 회사의 규정이 일본의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용되며 규정 자체도 회사의 기밀 사항이기에 연수가 끝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연수생별로 규정집의 일정한 범위를 읽도록 지시를 받았다. 정확히 읽지 못하는 부분이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따로 수정을 받거나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직원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셨다. 4시 30분 즈음이 되자 연수를 담당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종료 미팅을 하였다. 종료 미팅 자체는 어제 한 일을 물어보거나 궁금한 점의 질문, 다음 날의 간략한 일정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종료 미팅이 끝나고 5시 즈음이 되자 사무실에서 직원 분들에게 먼저 실례하겠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1. 3일차(7/30)

 두 번째 연수 날부터는 9시까지 회사에 가게 되었다. 도작하고 얼마 안 있어 연수 담당 직원 분들과 아침 미팅을 시작하였다. 아침의 미팅도 종료 미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특별히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간단하게 그 날의 일정을 들은 후 전날에 있었던 명함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연수를 담당해주시는 직원들 중 한 분이 작성한 내용을 인쇄해 건네 주셨고, 추가적으로 한 작업은 여러 장을 한 면에 복사한 카드 및 명함을 잘라내는 일 정도였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에 대해서 낭독 및 설명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은 부분은 전화 연수와 커피를 타는 방법이었다. 전화 연수는 전화를 받을 때의 적절한 대응법과 예의에 맞는 언어 사용이 주 내용이었다. 전화를 받는 것도 회사에서는 업무의 일환이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용건을 들으면 가까이에 메모지를 두고 그 내용을 적는 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다. 전화 예절이나 언어 사용은 사실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어로 대응을 한다는 점과 처음 전화를 받을 때의 긴장이 합쳐져서 실제 연습에서 제대로 반응하기가 어려웠다. 전화 연수가 끝나고 이어서 커피를 타고 나눠주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신입의 경우 손님이 오면 커피를 타서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나눠줄 때에 적절한 예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연수 자체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사무실 한 켠에 구비되어 있는 커피 포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커피를 타는지, 커피를 나눠주는 순서와 놓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전화 연수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예의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날 연수에서는 다이코IWS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출신의 한국인 선배와 미팅이 있었다. 당일 연수 종료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에 회의실에서 질의응답을 하며 여러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채용되었던 방법, 일본에서의 구체적인 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수 시간 종료 시점이 되었고, 그대로 종료 미팅을 마친 후 귀가를 하게 되었다.

1. 4일차(7/31)

 두번째 연수날과 마찬가지로 9시 이전에 회사에 도착해 대기한 이후 아침 미팅을 하였고, 회람판 등을 작성하고 한 면에 인쇄된 여러 장을 칼로 잘라 등분하는 잡무를 하였다. 그런 도중 서버실 체크를 하게 되었다. 서버실이 존재하는 이유와 이상이 없는지 매일 확인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실제로 체크를 하였다. 직원 분의 설명에 따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일로 시간도 걸리지만 매일 확인해야하는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였다.

 서버실을 체크하는 일이 끝난 후에는 아침 미팅에서 들었던 마지막 날의 발표를 대비해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의 준비를 하였다. 발표의 주제는 일정표에 적혀 있는 여러 예시 중 하나를 고르거나 본인이 생각해서 정하는 것이었다. 이 날의 남은 시간의 대부분은 파워포인트 작성으로 보냈지만 도중에 일일보고서 작성에 대한 연수 교육도 받게 되었다. 일일보고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 것인지, 주의점은 무엇인지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전날의 연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형식 자체는 교육을 받은 데다가 예시 자료도 있었기에 만드는 일에 곤경은 없었지만 일본어로 생각한 부분을 변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1. 5일차(8/1)

 연수의 마지막 날로 당일에 있었던 주요 일정은 서버실 체크, 7월 30일자 일일보고서 평가, 7월 31일과 당일 8월 1일의 일일보고서 작성, 발표가 있었다. 서버실 체크는 매일 하는 작업으로서 전날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 전날에 작성했던 일일보고서는 여러가지 첨삭한 용지를 받아서 평가를 듣게 되었다. 직원 분의 설명에 따르면 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어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되었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쳐 나갔고 앞으로의 일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언을 받았다. 이후 과거에 똑 같은 OJT 형식으로 연수를 받았던 고등학생의 발표 사례를 보여주며 파워포인트 작성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들었고 발표 시간 전까지 파워포인트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었다. 회의실에서 연수생별로 한 명씩 자신이 준비한 발표를 하였고, 이를 들은 연수 담당 직원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발표가 끝남으로서 연수 종료 시간이 가까워졌고, 파워포인트 작업 마무리 직전에 작성을 끝낸 일일보고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 분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으로 OJT 일정을 끝마치게 되었다.

1. 느낀 점

 OJT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기에 연수 기간 중 받은 교육의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현지 회사에 대해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현장 근무를 중시하는 OJT였기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원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또한 회사 하나만의 경험이었지만 OJT연수를 통해 일본 회사의 분위기나 업무 방식,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직접 체험하는 데에도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일본에 취업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부분 궁금했던 점을 상당 부분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하였다. 거기에 더해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역시 일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한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대화만이 아닌 상황에 따른 언어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연수기간 내내 실감할 수 있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정도나 직접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전화 응대나 발표와 같은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 해석이나 보고서 작성 등에서도 보다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후자의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이지만 전자의 발표와 같은 예시는 언어 능력만이 아닌 대응능력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화 응대나 발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연습을 한다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함께 있었다.

 다음으로 언급할 부분은 첫번째로 언급한 아쉬웠던 점이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수기간 내내 느낄 수 있던 점인 타인에 대한 감사이다. 이번 OJT 기간 내내 연수를 담당한 직원 분들은 물론이고,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은 다른 연수생들, 사무실의 한 켠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 일상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분들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협동하는 것이 업무의 향상은 물론 자기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었다. 연수 중의 교육이나 업무 등에 있어서 여럿이 함께 협력하는 편이 좀 더 매끄럽고 좋은 결과로 유도되었기에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번 OJT를 통해 다시 한 번 협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가치가 있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OJT 연수는 아쉬웠던 점이나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던 점도 있었지만 궁금해하던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현지 회사의 분위기 및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만족한 점도 있었다. 사실 아쉬웠던 점이나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 보았다는 점을 포함하더라도 실보다 득이 많았던 연수 기간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